

중국 조선족 소설사 기술태도에 나타난 소설의 기능 문제

김 중 하*

차 례

- | | |
|------------------------------|--------------------------------------|
| I. 중국 조선족 문학사의 저술 현황과 소설사 | IV. 대상 작가 선정에서의 재관적 태도 |
| II. 문학사 시기 구분에 나타난 민족 주체적 태도 | V. <조선문학사> <남조선문학개관>에서의 사실주의적·개방적 태도 |
| III.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의 민족 주의적 태도 | VI. 소설의 기능 문제, 그리고 남은 말 |

I. 중국 조선족 문학사의 저술 현황과 소설사

중국에 있어 조선족은 소수민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체가 된 뚜렷한 문학과 문학사의 정립을 기대하지만 거대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민족의 문학과 그 문학사에 대한 배려란 통치적 차원을 넘는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조선족의 유입과 정착과정을 보더라도 조선조 말기인 19세기 말이나 1920년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과 그들의 생존 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 극복의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 조선족 문학의 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애국지사나 독립투사 항일의사들에 의한 문학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중국문학사에 편입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문학사에 이르기까지의 축적된 것도 아니란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배려로 문학을 문학답게 대접하고 문학사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1945년 이후에서야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조선족 문학사가 중국에서 자주적으로 저술될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정은 연변대학에서 모두 북한의 문학사인 <조선문학사>를 교재로 사용했음에서 확인된다.¹⁾

1965년에 와서야 허 문섭에 의해 <조선고전문학사>가 저술되지만 이것도 북한의 문학기론과 문학 체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는데, 문화대혁명으로 이도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82년에 다시 저술되기에 이른다. 이어서 1986년에 박충록에 의한 <조선문학사>가 저술되지만 북한의 문학기론을 그대로 답습하여 문제가 된다.²⁾

중국에서 조선족의 문학사가 독자적으로 저술되는 것은 1989년에 와서야 가능했다.

<중국조선족문학사>가 그것인데, 조 성일, 권 철, 최 삼룡, 김 동훈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이것은 근대문학 이후의 것에 한정된다. 또 1992년 이 해산, 채미화에 의한 <남조선문학개관>은 광복 이후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의 당대 작가 작품을 다룬 것이고, 1994년 김병민의 <조선문학사>는 19세기 말~1940년대를 다룬 것이다.

이러한 연변·중국에서의 조선족 문학사의 정립과정을 살펴보다도 조선족 문학이 중국에서 자리매김되는 것은 연변대학이 중심이 된 조선족의 자주성 확립과 정체성 육구에 의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1) 최 응권, <中國延辺에서의 韓國文學研究와 그 전망>, 한양어문연구 12집,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94, p. 58 참조.

2) 앞의 책, pp. 59~60 참조. 허 문섭의 <조선고전문학사>가 1982년에 출간되었다고는 했지만 확인 결과 1985년 료녕민족출판사에서 간행된 것이었다. 최 응권의 글에서 보이는 출판 연대는 실제 인쇄된 것과 1년 차이가 있다. <중국조선족문학사>도 실제로는 1989년이 아니라 1990년이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조선족소설사”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문학사다. 때문에 조선족 문학사 속에 포함된 소설에 대한 서술 부분을 따로 정리해 보아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고 그 기술태도 또한 그러하므로 본 연구는 “문학사”와 “소설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차원에서 다루려 한다.

II. 문학사 시기 구분에 나타난 민족 주체적 태도

조선족이 비록 독립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 하더라도 한국민족으로서의 중국인의 문학은 큰 줄기인 중국문학 속에 포함되거나 거기서도 소홀히 다루어 지므로 우리 민족적 인식으로 그들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큰 과제였다.

그러므로 조선족 문학사는 큰 중국문학사와의 대비에서 그 정체성과 독자성을 발견해야 하고 또 그 점을 고려하여 폭 넓은 한국문학사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문학사의 어느 지점에 조선족 문학사가 위치할 수 있는 가를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족의 유입 정착 시기는 중국문학사에서 현대문학사 시기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현대문학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이나 기준년대도 다르고,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대체로 4단계로 시기 구분하는 것도 특이하다.

- 1단계 : 5.4운동~제1차 국내혁명전쟁시기(1919~1927)
- 2단계 : 제2차 국내혁명전쟁시기(1927~1937)
- 3단계 : 항일전쟁 전기(1937~1942)
- 4단계 : 항일전쟁후반기와 인민해방전쟁기(1942~1949)³⁾

3) 권 철, 김 제봉, <중국현대문학사>, 청년사, 1992. 3판 참조.

이 시기 구분에서 1단계를 신문학의 탄생과 성장, 2단계를 문학의 발전과 정치 이념상의 갈등, 3단계를 중일전쟁기와 국내전쟁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중 3단계는 1937~1949로 잡기도 한다.

김 병환, <중국현대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1991.

박 통산, <중국현대문학사>, 연변대학성인교육학원, 등에서도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문학의 독자적 발전 양상이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국내의 역사발전 시기에 맞추어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문학의 생성 여건으로서의 사회·역사 변동이나 정치적 변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945년과 같은 2차대전의 종전이 주는 의미가 우리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이 못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1949년 이후의 문학은 “당대문학”이라 하여 4단계로 나눈다.

- 제1단계 : 개척시기의 사회주의 문학(1949~1956)
- 제2단계 : 간난속에서도 전진한 사회주의 문학(1957~1966)
- 제3단계 :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학(1966~1976)
- 제4단계 : 새 시기의 사회주의 문학(1976~)⁴⁾

때로는 제1단계와 제 2단계를 합해 <17년 시기>로 하여 문화대혁명을 전후로 갈라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문화대혁명이란 정치·사회적 대변란을 앞뒤의 문학이 갈라지는 분수령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사 기술 방법은 그대로 조선족 문학사의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역사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면서 여건은 완전히 달라졌다. 1979년 10월 30일~11월 16일 북경에서 제 4차 전국문학예술일꾼대표자대회가 중국 각 민족의 문예일꾼 3200여 명이 참가·개최되면서 새시대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문학의 자율성과 합법칙성에 따라 당의 영도를 강화하였다.⁵⁾ 이것이 소수 민족 문학 발전에 크나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면서 소수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극적 충격을 주었다.

중국 조선족 문학사에 대한 인식은 여기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어 허문섭의 <조선문학사>가 1986년에 발간되고 1989년 <중국조선족문학사>가 발간된 때를 기다려 조선족의 문학사는 그 독자성이 드러나게 된다.

제1편 : 근대문학(이주~1920년의 문학)

4) 김 중수, 최 건, <중국당대문학사>, 청년사, 1991 참조.

5) 김 중수, 최 건 앞의 책 p. 372.

이러한 중국에서 조선족의 문학 활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준 글은 동양문학 제 5호(1988. 11)의 연변문학 40년사에 실린 “연변 조선족문학 40년사”(1949~1987)이다. 그러나 이 글의 필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제2편 : 현대문학(1920년~1949년)

제3편 : 당대문학(1949년~1986)

큰 시대구분은 민족 이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지만 현대문학, 당대문학의 구분은 중국문학사의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세분화되는 시기 구분은 중국문학사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구분에서 “중국의 사회력사발전의 단계성과 조선족 력사발전의 특수성 및 조선족 문학발전의 구체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양면성과 민족주체성의 강화란 점을 읽을 수 있다.⁶⁾

제1단계 : 천입-1920년의 문학

제2단계 : 1920년-1931년의 문학

제3단계 : 1931년-1945년의 문학

제4단계 : 1945년-1949년의 문학

제5단계 : 1949년-1966년의 문학

제6단계 : 1966년-1976년의 문학

제7단계 : 1976년-1986년의 문학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국문학사에서의 1927년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시기 구분의 준거가 되지 않고 1931년 일제의 동북아 진출에 따라 조선족이 일제강점하에 놓이게 된 것을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과, 1945년 해방을 또 다른 역사적 시기구분의 준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혁보다 조선족의 역사적 전환과 입지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민족적 자각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김 병민의 <조선문학사>는 중국조선족 문학사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문학사 소개이면서 해방 전까지를 다루는데, 중국의 개방화가 이미 꽃피운 1994년도에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문학사 기술태도를 수용함이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1. 19세기말-20세기초 문학

2. 1910년대 문학

3. 1920년대 전반기 문학(1919-1925)

4. 1920년대 후반기-1930년대 전반기문학(1926년-1935)

6) 조 성일, 권 철, 최 삼룡, 김 동훈,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pp. 6-7.

5.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 문학(1936년-1945년)⁷⁾

김 병민은 <조선문학사>에서 “근대현대부분”이라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그 큰 시대구분은 중국문학사를 따르되 시기구분은 민족적 특수성을 감안한 양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4기를 따로 구분한 것은 전혀 중국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이다. 이것은 카프 문학운동기를 따로 잡으려는 의도였으며 문단의 주도적 역할을 카프에 두려고 하는 태도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문학개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한국문학의 개괄적 소개라는 점에서 시기 구분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Ⅲ.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의 민족주의적 태도

중국에서 조선족의 주체적 입장에서 체계화된 문학사는 조 성일, 권 철, 최 삼룡, 김 동훈의 <중국조선족문학사> 한 권밖에 없다. 이 저서의 문학사 기술 태도를 분석해 보면 중국에서 조선족 연구가들의 시각이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될수록 조선반도의 문학사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80년대 중기까지의 조선족 작가들과 그들의 문학, 반일운동중에서 조선인민과 공동으로 창조한 문학, 항일전쟁 직전까지 중국에서 자기의 생애와 창작활동을 기본으로 마무리지은 조선민족의 작가들과 그들의 문학, 근대 현대에 조선족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전승된 구전문학 등을 중국조선족 문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19세기 후반기 이전까지 조선반도에서 창조한 문학은 공동한 유산으로 인정하되 본 문학사의 범주에 끌어들이지 않았다.⁸⁾

중국을 삶의 터전으로 한 작가를 중심으로 하되 문학 유산을 계승한다는 태도다. 결국 중국 조선족 문학은 생활공간이 중국에 한정되었을 뿐이지 문학의 본질적인 것은 민족 문학과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문학은 중화민족 문학의 조성 부분인 동시에 조선민족 <정체(整體)문학>의 일

7) 김 병민, <조선문학사, (근대현대부분)>, 연변대학출판사, 1994 참조.

8) 조 성일, 권 철 등 앞의 책, pp. 5-6 참조.

부분이다”⁹⁾라고 한 점으로 보아 중국에 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문학사의 기술방법은 중국문학사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각 시기별 기술 순서는 먼저 사회·역사적 배경을 서술하고 다음으로 그 시기의 문학운동 또는 문학활동을 개괄한 뒤에 그 중심이 되는 작가를 상술하고 있다. 이것은 문학의 생성 배경으로서의 역사발전 원리와 정책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작가와 작품의 이해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중국 역사 발전의 계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의 반영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았으며 중국신민주주의의 혁명의 기본적인 결속과 사회주의혁명의 시작을 표징한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심각한 사변으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족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는 바, 조선족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새 생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국후 17년동안 특히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한 후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방침상의 엄중한 실책, 말하자면 1957년의 반우파투쟁의 확대와, 1958년의 <대약진>운동과 농촌인민공사화운동, 1959년의 <반우경>투쟁과 지방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정풍운동, 1963년-1965년의 계급투쟁 확대화와 절대화 등 <좌>경적 오류로 하여 극절많은 발전과정을 경유하였다.¹⁰⁾

위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조선족 문학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 제도의 조명을 받아가며 자라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형식의 통일을 이룬 신형의 문학”¹¹⁾으로 발전하였다.

모든 문학은 사회주의적 지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사회변화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특히 “민족형식”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족형식이란 한국 문학의 특징과 역사성을 포괄하는 말이다.

문학의 민족적 특성은 장기적인 문학 실천 중에서 점차 형성되고 발전하

9) 앞의 책, p. 7.

10) 앞의 책, pp. 277-8.

11) 앞의 책, p. 278.

여 타민족의 문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표징으로 된다. 조선족 문학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민족어로 우리 민족의 생활과 투쟁, 사상과 감정, 성격과 심리, 풍습과 자연 풍물을 형상화한데서 작품으로 하여금 민족적 내용과 형식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¹²⁾

임 범송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민족 고유의 정서와 그 전통적 형식을 포함한 민족주의적 문학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에서의 조선족 문학이 제자리매김을 바르게 하자면 바로 이 민족주의적 바탕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사회주의와 그 문학적 실현 방법으로 비판적 사실주의를 토대로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건설과 완성을 목표로 한 중국사회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조선족의 절절한 삶의 궤적을 집대성하려는 데 충실하려는 태도가 기본이라 해도 <중국조선족문학사>의 발간연대가 1990년이란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개방되고 객관화하려는 입장과 조선족의 주체성과 민족주의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없는 정치운동 특히 반우파투쟁 이후 조선족 소설문학이 생활의 긍정면에 대한 표층적인 반영과 찬양에만 지나치게 쏠리고 현실 중의 암흑면을 회피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또한 계급투쟁이 확대되고 절대화됨에 따라 애정소재와 민족력사소재가 모릅지기 소설들이 건드릴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되었다. 인물형상창조에 있어 영웅인물의 부각에 편면적으로 강조되고 각양각색의 인물형상창조가 홀시되었다. 또 인물형상창조에서의 계급적인 공통성에만 력점을 두는데서 인간심층의 회로에락을 발굴함이 부족하였다.¹³⁾

이런 비판적 태도는 조선족 문학, 소설에 한정되는 것이라기보다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2) 임 범송, 권 철, <조선족 문학연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89, p. 47.

13) 조 성일, 권 철 등 앞의 책, p. 355.

IV. 대상 작가 선정에서의 객관적 태도

문학사가 포괄적 역사적 기술태도인 데 비해 개관은 사항별·항목별 집중성으로 보아 역사적 성격은 약화된다. 그러나 그들의 서술태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가의 선정에서다. 3권의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근대문학기에 해당되는 1910년대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가는 신 채호라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적·애국적 정신의 투쟁이 가장 직접적이란 점에서 쉽게 수긍된다. 그러면서 리 인직, 리 해조 등과 같은 신소설 작가도 포함시켜 놓고 리 광수·현 상윤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문학과의 전통적 접맥을 고려한 것으로 그 역사적 전개의 접촉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대문학기로 옮겨가면 사정은 약간 달라진다. <중국조선족문학사>는 철저하게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을 위주로 하고 창작활동의 근거를 중국으로 삼았다가 귀국한 작가를 첨가하는 식으로 기술되고 있는 데 비해 <조선문학사>는 한국 내에 있는 중심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저서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 시기 구분별로 거론되는 대표소설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1920 ~ 1931년의 문학 : 신 채호
- 1931 ~ 1945년의 문학 : 김 창걸
- 1945 ~ 1949년의 문학 : 김 학철
- 1949 ~ 1966년의 문학 : 김 창걸, 김 학철, 림 호렬, 리 근전, 마 상욱, 최 현숙, 백 호연, 백 남표
- 1966 ~ 1976년의 문학 : 리 봉렬, 리 왕구, 리 선근, 최 건
- 1976 ~ 1986년의 문학 : 김 학철, 리 근전, 김 용식, 리 홍규, 림 원춘, 류 원부, 김 창걸, 고 신일, 리 원길, 정 세봉, 윤 림호, 리 만호, 류 원부, 박 천수, 정 세봉 이외의 신진 다수

당대 문학기에 이르면 조선족의 소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배출된다. 그것은 당의 정책과 문예활동의 권장, 그리고 일단은 일제에 비해 안정된 생활 등의 여건이 새로운 작가의 출현을 자극한 것이고 연변지역의 조선족 문

학가연맹이 만들어지면서 왕성한 창작의욕을 돋군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1966~1976년의 문학에서 보면 갑자기 작가의 수가 줄고 그들의 작품활동 역시 위축되는 것은 “문화대혁명”이 명목상으로는 문화혁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변혁이요 홍위병의 난동에 따른 극혼란기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앞서 있어서 새로운 창작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족문화혈통론>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1969년 7월 29일 <연변일보>에 <“민족문화혈통론”을 철저히 짓부시자>라는 글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민족문학, 조선민족문학은 말살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¹⁴⁾ 이 시기의 문학활동이란 실상 두 개의 지향밖에 없었다. 하나는 이전 작품에 대한 비판과 탄압, 들은 정치학습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흔히들 혼란기 또는 암흑기라 명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공산당의 영도아래 이끌어 나간 사회주의 문학이 아닌 돌연변이적 이탈기라 보는 것이다.

<조선문학사>는 주로 근대·현대부분만 다루고 있으며 또 대상 영역을 중국 조선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현대문학사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작가의 선정에서 사회주의적 입장 이외의 특별한 저술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작가의 선정에서보다 그들 작가에 내려지는 평가나 비평태도에서 중국의 조선족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V. <조선문학사> <남조선문학개관>에서의 사실주의적·개방적 태도

<조선문학사(근대현대부분)>나 <남조선문학개관>이 한국의 문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조선족 연구가들의 연구태도가 잘 나타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두 저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14) 조 성일, 권 철, 앞의 책, p. 451.

리 인직은 신소설의 개척자일 뿐아니라 가장 높은 예술성으로써 당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소설창작의 근대화를 실현하였다. …… <중략> …… 그러나 리 인직의 소설창작은 일정한 한계성이 있는바 소설 <혈의루>에서는 친일적 견해가 표현되고 있으며 소설 <은세계>에서는 의병투쟁을 외곡한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이는 시대적인 제한성인 동시에 작가의 계급적·세계관적 한계성의 반영이기도 하다.¹⁵⁾

신소설 작가 이 인직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다. 그의 문학사적 업적을 긍정하되 그의 작품이 갖는 허점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연구자의 태도라기보다 문학을 객관화시키려는 엄정성을 그대로 내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10년대의 중심작가로 보는 이 광수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의 계몽의식은 식민지 사회라는 특수한 현실과 그 현실에 부여된 과제로 볼 때 가장 정당한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민족개량·민족혁명주의의 소극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작품에 일관된 반봉건의식, 자유연애와 개성해방 등 사상은 일정한 계몽적 의의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설의 양식적 측면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¹⁶⁾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입장이나, 이 광수의 일제말 빈민족적 행위를 감안한다면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힘든 작가가 이 광수임에도 그의 문학사적 업적이나 형식적 공적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소설을 다만 사상의 대중적 계몽수단으로 보거나 사상 우위적 비평태도가 아니라 소설이 갖는 문학·미학적 가치를 객관화시키려는 개방성이다.

이러한 태도는 192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 김 동인 소설을 “유미주의, 자연주의 등을 수용하여 계몽주의 문학에 대한 혁신을 시도한 작가”¹⁷⁾로 평가하고, 염상섭에 대해서는 “현실의 비판에 어느 정도 지향”하여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문학창작의 길을 마련”¹⁸⁾한 공적을 인정한다. 이에 비해 현진건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첫 작가”, “현대 단편소설의 개척자이며 명수”¹⁹⁾로 평가하고,

15) 김 병진, <조선문학사(근대현대부분)>, 연변대학출판사, 1994. p. 20.

16) 김 병진, 앞의 책, p. 71.

17) 앞의 책, p. 125.

18) 앞의 책, p. 128.

나 도향은 “사실주의적인 특성을 주로 구현하면서도 낭만주의의 색채가 짙은”²⁰⁾ 점이 있지만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가로 파악하고 있다.

신경향파 소설가 최 서해에 대해서는 “소설창작을 통하여 계급적 대립과 그 투쟁을 보여 주면서 계급적 각성 중에 처한 긍정적인 주인공을 일정한 수준에서 형상하였다. 이런 성과로 하여 그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길을 개척한 작가”²¹⁾로 높이 평가한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사회주의적 문학 태도로 일관된 중국에서의 필자의 시각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태도는 1920년대 후반기~193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 조 명희, 리 기영, 한 설야, 홍 명희에게 이어져 이들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농촌소설가로서의 리 무영, 심 훈도 이에 못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방 인근, 최 독건, 리 광수, 함 대훈, 김 말봉, 박 계주, 리 태준, 박 화성의 소설도 통속애정소설이라 하여 거론하고 “사랑문제를 사회문제와 류리시키면서 통속적인 취미를 추구함으로 하여 시대력사적 의의가 격하되”²²⁾었다고 한다.

염 상섭의 <삼대> <무화과> 등은 “양심적인 부르주아 입장에서 현실의 모순을 묘사한”²³⁾작품으로 평가하고 김 동인의 <붉은산>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준 작품”²⁴⁾이라고 평한다.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는 카프계열 작가의 변모를 일별하면서 박 태원의 <천변풍경>을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세대묘사로서 예술적 매력을 담보하고 있다”²⁵⁾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역시 채 만식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풍자소설 작가로 높이 평가하고 리 근영, 현 덕, 김 유정, 현 경준을 30년대 후기에 나타난 주목받는 작가로 다룬다. 리 태준은 계속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로 “인민주의경향을 질계 보여 주면서 경우에 따라 그것이 북고주의 정서, 민족주의 정서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사실

19) 앞의 책, p. 133.

20) 앞의 책, p. 138.

21) 앞의 책, p. 147.

22) 앞의 책, p. 259.

23) 앞의 책, p. 259.

24) 앞의 책, p. 261.

25) 앞의 책, p. 360.

주의적 묘사는 시종일관²⁶⁾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모더니즘 소설과 순수주의 소설 함에서는 이 상을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 말기 지식 인테리의 상실감²⁷⁾을 표현한 작가로, 최 명익을 “일제말기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소외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 주었다²⁸⁾고 하고 김 동리의 소설을 “근대합리주의를 거부하고 샤머니즘적 신비주의로 특징되는 인간의 원초의식을 추구하려는 순수문학²⁹⁾으로 평가한다.

<조선문학사>는 한국의 현대문학사를 “력사주의 원칙에 밑각하여 객관적 시각에서³⁰⁾ 기술하려 하고 대학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쓴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조선족문학사>가 갖는 협애함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설이 이데올로기에 제약받는 입장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지나 시인에 대한 언급, 문학 비평에 대한 것도 작가의 일관된 객관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어떤 선입관으로 대할 수 없는 저서다.

<남조선문학개관>³¹⁾에서 채 미화의 태도도 일단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이 보인다. 1950년 6.25 사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그것은 자칫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남북간의 대립적 양상과 그 냉전체제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나 전후 한국 사회인식은 객관화시키고 있다.

남조선의 50년대는 <가장 암흑한 시대> <민음성 없는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남겨 놓은 초토의 환경과 더우기 리 승만 파쇼독재정권의 부패한 사회제도의 실시는 빈곤의 보편화와 사기, 절도, 폭력, 타락, 불신풍조와 극단적인 리기주의를 초래했다. 파괴와 혼란으로 뒤죽

26) 앞의 책, p. 358.

27) 앞의 책, p. 361.

28) 앞의 책, p. 361.

29) 앞의 책, p. 364.

30) 앞의 책 머리말에서 “지금까지 나온 국내의 근대현대문학사들은 남북으로 분단된 사회정치적 현실과 리념의 차이로하여 문학 발전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31) 리 해산, 채 미화, <남조선문학개관>, 연변인민출판사, 1992. 이 책은 “남조선시문학개관”은 리 해산이, “남조선소설문학개관”은 채 미화가 썼다.

박죽이 된 전후현실에서 문학은 종래의 순수문학을 부르짖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중략> …… <전후문학파>로 불리우는 젊은 세대의 작가들이 등단하면서부터 현실부정과 저항의 문학이 새롭게 창조되었다.³²⁾

1950년대는 이전의 작가 안 수길, 황 순원, 김 동리 등 순수문학가를 주변부로 보고 전후작가의 중심부에 손 창섭, 김 성한, 장 룡학, 서 기원, 오 상원 한 말숙을 놓고 이들의 작품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부패문란한 사회적 형편을 폭로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하 근찬, 오 유권, 박 경리, 박 연희, 류 주현, 최 일남, 오 영수 등을 전후 사실주의 문학자로 본다. 1960년대는 4.19세대 작가의 출현에 주목하여 내성기교주의 소설가로 김 승옥, 이 청준, 서 정인, 박 태순 등을, 시민적 사실주의 소설가로, 김 정한, 천 승세, 방 영웅, 신 상웅, 이 호철, 최 인훈, 선우 휘, 남 정현 등을, 전통적 서정주의 소설가로 박 경리, 황 순원, 안 수길을 든다. 1970년대 상업주의 소설가로 최 인호, 한 각수, 조 선작, 김 주영, 한 승원을, 민족주의 작가로 이 문구, 백 우암, 황 석영, 윤 홍길, 조 사회, 윤 정규를 중심에 두고 송 기숙을 첨가하며 소설적 성과작은 박 경리의 <토지>와 황 석영의 <장길산>을 든다.

“전두환 독재정권은 비밀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민중운동에 대한 조직 폭력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공포와 테로가 사회분위기를 압도했고 고문, 살해, 분신, 투신자살 등의 죽음은 계속 이어졌다. …… <중략> …… 이 시기에 창작된 소설은 사회의 현장과 밀착되면서 체험적 요소가 강한 동시에 통일, 민주 등 대명제에 대한 관념적 접근이 훨씬 구체화되고 뚜렷해진 것으로 특징적이다.”³³⁾

198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대응을 이렇게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에 맞게 임 철우, 이 원규, 이 상문 등의 신진 작가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높이 평가한다.

사실폭로 주제의 소설가로는 김 향숙, 김 종성을, 생활세대 및 심리 소설가로는 이 창동, 최 수철, 이 제하, 양 귀자 등을 든다.

32) 채 미화, 앞의 책, p. 182.

33) 채 미화, 앞의 책, pp. 309-310.

채 미화의 시각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목은 저자후기다.

남조선이란 이 특정한 사회에서 부동한 사상 경향과 창작 경향을 가진 작가들이 내놓은 작품들에는 오색영롱한 빛을 뿌리는 알찬 것도 있고 을씨년스러운 가을날에 날리는 탁엽도 있으며 고운 빛갈의 독버섯도 있다. 그것들을 보면서 옳게 감별해 내는 것은 창작의 제2주체가-평론가 독자들의 필수적 과업이라고 생각한다.³⁴⁾

비유적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작품이 알찬 것이고 탁엽이며 독버섯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전체의 흐름인 일관된 사실주의, 비판적 사실주의적 태도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문학이, 소설이 시대적 반영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응해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의 궤적이라고 본다면 사실주의 정신은 영원한 문학적·소설적 명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주의가 그 앞에 관형어가 붙게 되면 그 본질이 오히려 관형어에 의해 제한받거나 변질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단 제3국적 입장에 있는 중국 조선족 연구가의 태도가 예민한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껴 가면서 한국의 현대 문학을 조명했다는 점을 높이 사면서, 소설이 그 사회에 대응하는 이상의 대항적 담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VI. 소설의 기능 문제, 그리고 남은 말

사실주의적 문학태도는 소설을 대사회적 발언으로 본다. 비판적 사실주의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사회변혁과 계도성을 그 기능에 첨가시킨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요, 당 정책에 문학활동도 따를 것을 중용받는다는 사실에서 보면 중국에서의 소설 기능은 비판적 사실주의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준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중국소설사에서 소설의 기능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충실함을 기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에

34) 채 미화, 앞의 책, p. 329.

서 조선족의 지위가 문학연구가나 작가에게 이중적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연구가들은, 중국 국민이라는 입장과 조선 민족이라는 입장, 거기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입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는 먼저 북한과의 근접성이 있겠지만 최근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가 밀접해지고 북한과의 거리가 소원해지는가 하면 조선족 연구가들의 빈번한 한국 나들이가 정치적이기 전에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겠지만 중국의 정치적 방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국에서의 문학적 태도가 사실주의 경향으로 경도되어 있고 진보적 연구가들은 비판적 사실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조선족 연구가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면 중국 조선족의 문학사·소설사 기술태도는 한국에서의 것과 대차 없고 또 소설의 기능 문제도 그러하다.

결국 중국 조선족의 소설사에서 “중국”의 지역성이 강화되느냐, 문학의 주체로서 ‘조선족’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기술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중국’이 강화되면 ‘중국의 문학사’의 일부로 증속되기 때문에 중국 문학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국 속의 한국 민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해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농후해진 것은 틀림없고 또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문학사 기술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조선족’이 강화되면 현대·당대 문학은 한국의 문학사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그것은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나지 않는 현실적 여건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질 수 없는 3자적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남조선문학개관>이나, <조선족문학사(근대현대부분)>는 한국적 입장에서 있는 듯하지만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문학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추론적 논리가 실질적 창작과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느냐 하는 구체적 분석과 검증의 단계다. 이는 논제를 달리하여 충분히 분석되고 거론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